

광명소방서, 노온사동 사들물류단지 화재현장 점검

☞ 신용섭 기자 | Ⓞ 승인 2025.01.03 11:00



2024년 12월 23일 화재발생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포커스신문] 광명소방서는 2일 광명시청과 함께 작년 12월 23일에 발생한 노온사동 사들물류단지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노온사동 화재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연소확대가 됐고, 물류보관창고로 사용 중인 비닐하우스 7개동이 소실됐다.

이날 광명소방서장은 현장에 방문한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화재발생 경위를 설명하고, 현장관계자의견 청취, 점유자 화재예방 방안 및 초기화재 소화 대응책에 대해 논의한 후 화재취약시설을 점검했다.

논의 내용으로는 ▲사들물류단지 관계자 호스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및 소화용수설비 추가 설치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 ▲현지적응 소방훈련 및 합동안전점검 ▲화재현장 위험물질 제거 등으로 화재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충 서장은 “소규모 물류단지는 인접 건물로 화재 확산과 재산·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가연성 물질에 대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작업장 환경개선과 초기 진화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화재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섭 기자